

제공일자	2013. 6. 7(금)	담당자	전용식 동향분석실 부실장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3775-9051)	연락처	3775-9035, 010-9247-8637 총2매

제목 : 보험연구원, 위기의 자동차보험, 진단과 대책 세미나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: 강호)은 6월 10일 (월)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「위기의 자동차보험, 진단과 대책」 세미나를 개최하였음.
 - 박대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험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(사회: 이순재 세종대 교수)에서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선량한 계약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음.
 - 「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과 손해보험」과 「자동차보험제도의 미래」라는 두 가지 주제가 발표가 되었고,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외 5명의 토론자들의 토론이 있었음.
- 첫 번째 주제발표 「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과 손해보험」(발표자: 전용식 연구위원)에서는
 -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적자와 영업수지의 변동성 확대가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안정성 훼손과 산업구조조정을 초래하고, 실물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.
 - 특히 저성장-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,
 -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은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하고 보험회사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,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.
- 두 번째 주제인 「자동차보험제도의 미래」를 발표한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보험금 누수억제 및 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음.

- 첫째, 보험금 누수억제를 위해서는 **보험사기를 방지하고, 자동차 부품시장을 개편하여 자동차 수리비를 합리화**해야 함.
 -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지급 데이터간 정기적 데이터 매칭, 경찰과 보험회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사고 확인기능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.
 -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는 FY2010 지급보험금 9조 5175억 원의 10.6%인 1조 88억 원으로 추정됨.
 - 자동차 부품시장 개편을 위해서는 Non-OEM부품 사용약관 명시,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 확대, 외제차 부품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이 요구됨.
 - FY2012 3/4분기까지 자차·대물담보 수리비는 총 4조 6천억 원이며, 이중 부품비용의 비중이 45%를 차지하고 외제차 수리비는 전체 수리비의 약 20%를 차지

규제담보는 요율평가위원회를 통해 규제, 자유담보는 완전자유화

- 둘째, 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시장을 **담보별로 이원화**해야 함.
 - 규제담보(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 가입한도 1,000만원)에 대해서는 보험료 규제를 강화해야 하나 **규제담보 이외 담보(자유담보)의 경우 보험료 규제를 완화**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.
 - 규제담보 보험료는 정책당국, 학계, 시민단체,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요율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.
 - 자유담보(규제담보 이외 담보)에 대해서는 요율을 자유화해야 함.
-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보험시장이 효율적 경쟁 시장으로 전환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.